

## 화학의 해 맞아 관련행사 “붐물”

UN이 정한 세계 화학의 해를 맞아 국내외에서 1년 내내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화학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화학의 해 선포식이 1월 27-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에서는 3월 중으로 각각 마련될 예정이다.

4월 28-29일 제주에서 대한화학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7월에는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화학 대사팀이 세계에 파견돼 한국의 화학 수준을 알리는 동시에 선진국의 화학 연구 및 산업현장을 벤치마킹한다.

8월 19-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화학용어를 비롯해 화학 관련개념과 교육 정책들을 조율하는 한민족 화학자 학술대회가 열리고 같은 달 대구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축전이 벌어진다.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300-400개 화학 관련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투자유치와 인재채용 등을 도모하는 화학연합(ChemConnect) 행사가 성대하게 마련되는데 5000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는 세계 화학의 해를 기념해 주요 화학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범화학 학술대회도 열린다.

세계 화학의 해 취지와 한국 화학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정의할 수 있는 선언문(20자 이내) 공모전이 1월 말까지 진행돼 4편의 선언문이 3월 선포식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작 출품자에게는 iPad가 상품으로 주어진다.

1월 말과 7월 말 2차에 걸쳐 화학영상도 공모되며 7월 세계에 파견될 화학대사팀 모집도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04>